

<컴패션 뉴스레터 1967년 5-6월 특별호>

순서

	(페이지: 원본 기준)
<b>저와 함께 컴패션 보육원으로 떠납시다!</b> (사진) 컴패션 보육원	2페이지
헨리 하비 컴패션 신임 회장이 우리의 독자들을 컴패션 보육원으로 직접 안내합니다.	
<b>가을 투어 계획</b> (사진) 미리암 스완슨(Miriam Swanson) 여사	9페이지
올가을과 겨울, 한국의 어린이들이 세 번째로 미국과 캐나다의 여러 교회를 방문합니다.	
<b>에버렛 스완슨 기념관 완공</b> (사진) 아서 크누센(Arthur Knudsen) 이사	10페이지
컴패션 설립자 소천 18개월 만에 서울에 추모기념관이 완공되었습니다.	
<b>보육원 성경 교사들에게 후원이 시급합니다.</b> (사진) 성경 교사	11페이지
컴패션의 171개 보육원 중 47곳만 성경 교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읽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b>컴패션 우체통</b> (사진) 하비 회장의 비서	12페이지
하비 회장의 비서인 오나 브루턴(Ona Bruorton) 씨의 감동적인 간증이 소개됩니다.	

**이번 매거진 표지가 한국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번 <컴패션> 매거진에는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네, 이번 호는 컴패션의 모든 친구들, 바로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에게 한국에 관한 풍성한 정보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하루가 어떤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후원에 얼마나 감사해하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국 특집호"를 더욱 흥미롭게 소개하기 위해, 컴패션의 헨리 하비 대표이사가 여러분을 한국으로의 특별한 여행에 초대합니다.

## 저와 함께 컴패션 보육원으로 떠납시다!

- 글: 헨리 하비 목사

컴패션의 171개 보육원을 모두 방문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조차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보육원을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북한에 인접한 38도선의 비무장지대부터 남쪽으로 약 400마일(약 646킬로미터) 떨어진 제주도까지 보육원들이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컴패션 보육원은 한국의 모든 지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아직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 시스템은 잘 되어 있지만, 컴패션 보육원은 도시가 아니라 땅값이 저렴하고 건축비가 덜 드는, 즉 교통이 잘 닿지 않는 지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도로는 재정이 부족하고 건축 자재가 비싼 여타 저개발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로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도로 상태가 좋지 않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이동은 매우 어렵고 힘들며 피곤하며 지루한 여행이 됩니다. 사륜구동 지프인 영국산 랜드로버는 차체가 높고, 매우 튼튼해 보이지만 한국의 거친 고속도로에서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 견고한 차량도 열악한 시골길 위에서는 시속 30마일(약 48킬로미터)을 넘기 어렵습니다.

(사진)

컴패션 보육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1966년 5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가능한 한 빨리 컴패션이 운영하는 모든 보육원을 방문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124개 보육원을 방문했으며, 아직 47개 보육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20곳은 비교적 쉽게 갈 수 있지만, 나머지는 가기가 매우 어려운 곳에 있습니다.

- 미국인의 방문은 중요한 행사입니다.

컴패션의 한국 주재 미국인 직원은 모건(Morgan) 가족과 김볼(Kimball) 가족, 그리고 두 명의 독신 간호사인 셸리 스완슨(Sally Swanson) 씨와 다이안 어브(Daine Erb) 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제 시간의 2/3 정도를 한국에서 보냈고, 이로써 저는 미국 직원 중 다섯 번째로 정규직 직원이 될 것입니다. 스완슨 여사와 햄월 박사도 함께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보육원에서 미국인의 방문은 중요한 행사이므로 어린이들은 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학교에 가지 않고 보육원에 남기도 합니다.

우선 한국의 남쪽, 부산에 있는 컴패션 보육원의 방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보육원의 대부분은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산에는 30개의 컴패션 보육원이 있습니다. 도시 자체의 인구는 약 150만 명입니다. 보육원의 규모는 57명의 어린이부터 200명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이 중에는 물론 아주 좋은 보육원도 있고, 보통 수준의 보육원도 있고, 상태가 좋지 않아 지속적인 보살핌과 조인이 필요한 보육원도 있습니다.

(사진)

이사회 위원들과 함께 공항에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 탁월하게 운영되는 보육원 살펴보기

부산의 힐사이드 보육원(Hillside Orphanage) 방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은 훌륭한 보육원입니다. 1임(Lim) 원장님은 장로교회의 장로입니다. 임 장로님의 이야기는 매우 슬프지만, 한국에서는 흔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북한에서 자란 장로교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신념에 충실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을 점령하면서 그의 아버지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임 장로님도 공산주의자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의 가족 전체가 기독교 신앙 때문에 공산주의 지도자들에 의해 멸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북한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그의 가족은 그가 떠나면 안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침내 그에게 가족을 떠나 한국으로 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는 가족 모두가 함께 갈 수 없었고, 그의 아내는 병약해서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가족을 떠나 남쪽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그날 이후로 그는 가족들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17년이 지났지만, 그는 아직도 그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역할을 맡아, 보육원 어린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칩니다. 힐사이드 보육원은 컴패션의 모든 보육원 중 최고의 보육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힐사이드 보육원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임 장로님이 어린이들을 잘 먹이고, 최선을 다해 교육하는 것 외에도 온전한 아버지의 사랑과 보살핌을 베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직원을 뽑을 때도 어린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선택했고, 모든 고아들이 필요로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는 어린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모

---

<sup>1</sup>임(Lim) 원장님: 역주: 임성운 원장

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영적인 리더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는 보육원에서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세 소녀가 있는데, 그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치라는 부르심을 느꼈고, 이에 전도사가 되어 한국 어린이들을 위하여 사역하기 위해 고려신학교(Korya Seminary)에 입학했습니다. 컴패션은 힐사이드 보육원에서의 결과를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후원자들은 진정한 성과를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

- 컴패션 고아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 보육원마다 건강한 얼굴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 보육원에서의 생활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훌륭하다"라고 평가하는 보육원에서 어린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을 것입니다. 특히 후원자가 제공하는 10달러의 지원으로 모든 비용을 충족해야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매우 단순합니다. 침대도 없고, 의자도 몇 개 없으며, 테이블이나 기타 가구도 거의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자는 방은 '온돌방'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미국식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종의 복사열 방식의 난방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온돌 난방 방식은 수백 년 전 한국에서 처음 발명되었습니다. 석탄 난로는 실제 방 밖에 놓이며, 난로의 불과 열을 흡수하는 연통은 방바닥 아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연통은 가끔 뒤편까지 두세 번 구부러져서 방 반대편에서 나와 지붕으로 이어지는 파이프에 연결됩니다. 난방이 되면 바닥이 매우 따뜻하고 뜨거워집니다. 방바닥은 여러 번 덧댄 한지로 덮여 있으며, 한지는 접착제로 붙어 있어 바닥과 단단히 밀착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방바닥에서 잡니다. 면과 양모로 된 2~3인치(약 5~7.5센티미터) 두께의 무거운 이불이 방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이불 속에서 8~10명의 어린이가 따뜻하게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8x10피트(약 2.4x3미터) 크기의 방에서 작은 어린이들의 경우 10명 또는 12명이 함께 자기도 합니다.

잘 운영되는 모든 보육원의 또 다른 특징은 깔끔함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100명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담요는 잘 접어 한쪽에 정리해 두고, 어린이들의 옷은 라벨을 붙여 고리에 걸어 둡니다. 심지어 칫솔도 일렬로 정리해 두어야 어린이들이 아침이 일어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가 보내준 옷과 선물은 각 어린이의 이름이 적힌 상자에 넣어 잘 보관합니다.

조리시설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꽤 큼니다. 주방에는 50~100갤런(약 189~379리터)의 쌀을 부을 수 있는 매우 큰 냄비가 2~3개 있습니다. 숯덩어리 형태의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조리를 합니다. 연탄은 석탄 가루와 진흙을 섞어 지름 약 12인치(30센티미터), 높이 약 8인치(20센티미터)의 원형 틀에 눌러서 만드는 연료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솥 아래 작은 수레가 놓여 있고, 연탄 두세 장을 한 번에 태웁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이 주방은 실용적인 역할을 합니다.

쌀은 한국의 주요 음식입니다. 어린이들은 밥을 너무 좋아해서 밥을 주식으로 하지 않으면 잘 먹지 않습니다.

정부는 어린이들의 복지를 위해 매달 약 2달러 상당의 보리와 쌀을 각 보육원에 공급합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어린이들에게 쌀만 제공되는 일은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보리와 혼합하여 영양가 있는 조합을 만듭니다. 시금치, 당근, 순무 등 각종 야채를 익혀서 만든 반찬도 곁들여줍니다. 마늘을 많이 넣어 만든 '김치'라고 불리는 아주 매운 피클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 모든 음식은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두 번 생선이나 고기를 제공합니다. 콩에는 23%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매일 어떤 형태로든 콩을 섭취하도록 식단에 포함합니다. 아기들을 위한 보육원(Baby Homes)에 있는 더 어린 아기들에게는 컴패션이 호주에서 들여온 전유를 대량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이들에게 책과 공책, 연필이 얼마나 많은지 바로 알 수 있으며, 이 어린이들이 공부를 좋아한다는 인상을 즉시 받게 됩니다.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저는 예배에 참석한 어린이들에게 지금 방학 중인지 물었고, 그들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언제 개학이냐고 물었더니, 어린이들은 "머칠 후"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자, 이제 솔직하게 대답해 주렴. 학교에 가는 것보다 방학이 더 좋은 어린이는 몇 명일까?"라고 물었고, 단 한 명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방학보다 학교에 가는 것이 더 좋으냐고 물었더니, 모든 어린이들이 열정적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학교는 대부분 난방이 되지 않으며, 난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교실 중앙에 있는 작은 난로 하나뿐입니다. 종종 어린이들의 입김이 보일 정도로 추운 환경입니다. 글을 쓸 때는 손이 얼어서 두 손을 비벼서 녹인 후, 한두 문장을 썼다가 멈추고, 다시 손을 비비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한국의 어린이들은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보육원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심지어 부잣집 어린이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사진)

- 한국어 통역가를 통해 설교하는 것은 정말 흥분되는 일이었습니다.

- <sup>2</sup><가스펠 라이트>의 에바 코넬리어스(Eva Cornelius) 씨가 서울 주일학교 콘퍼런스(Seoul Sunday School Conference)에서 설교했습니다.
- 컴패션 번역가인 채은영(Che Un Yung) 씨가 한국에서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 컴패션 전도사들이 바이블 콘퍼런스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 이 사랑스러운 컴패션 어린이들이 저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 한국의 남자 어린이들도 나무 타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서든 라이트 아기 보육원(Southern Light Baby Home)

우리의 훌륭한 아기들을 위한 보육원(Baby Homes) 중 하나인 "서든 라이트(Southern Light)" 보육원은 부산시에 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보육원은 지난 1년 동안 눈에 띄게 발전했습니다. 컴패션의 간호선교사인 셸리 스완슨 씨와 함께 처음으로 서든 라이트 보육원(Southern Light Orphanage)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에 빠져 있으며, 목욕도 자주 하지 않고 있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저는 원장님에게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물었고, 원장님은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부산시가 길거리에 떠도는 어린이들을 모두 그녀의 보육원으로 데려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시 정부는 보육원에 최소한의 지원만을 제공했으며,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엔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66년 5월의 일이었고, 그녀의 말을 듣고 나서 저는 그녀의 상황이 충분히 타당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도와야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더 많은 지원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명의 훈련된 간호사를 추가로 고용하도록 지원하고, 한 달에 112파운드(약 51킬로그램)의 분유를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하기로 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후원자를 더 모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보육원의 상황은 즉각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이 늘자 그녀는 두 명의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었고, 아기들에게 분유를 먹일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보육원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린이들은 살이 오르기 시작했고, 보육원의 청결 문제 및 기타 조건도 개선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더 많은 후원자가 그녀의 보육원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컴패션에서 가장 좋은 보육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만약 보육원 운영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분이시라면, 가장 큰 문제는 일할 사람이 부

---

<sup>2</sup>가스펠 라이트(Gospel Light): 1875년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기독교 출판사(<https://www.gospellight.com/inside-gospel-light/>).

족하고, 어린이가 가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점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서든 라이트 보육원의 어린이들은 어린이를 돌보는 여성 직원들과 보육원 선생님들로부터 사랑과 보살핌을 받습니다. 저는 보육원이 이상적인 양육 환경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가정생활보다 나은 점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은 서로 잘 지내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기질이 크게 다를지라도 다른 어린이들과 어울릴 줄 압니다. 그러니 1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보육원에서 컴패션 어린이를 키우는 것이 전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서든 라이트 보육원의 음식은 주로 분유와 밀을 섞어 만든 죽과, 묽은 죽 형태로 끓인 보리로 구성됩니다. 아기들이 충분한 전유를 섭취하면 건강하게 자라지만, 큰 문제는 아기가 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충분한 단백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식품 보충제를 통해 이 필요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컴패션은 아기 보육원들을 방문하여 식단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 보건 간호사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놀랍도록 헌신적인 간호사들은 컴패션 아기 보육원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사진)

- a. 홀리네스 앤 그레이스 보육원(Holiness and Grace Orphanage)의 원장님(왼쪽)은 최근 대학을 졸업한 전쟁고아를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 b. 간호사 셸리 스완슨과 함께 수십 개의 컴패션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 c. 사랑하는 저의 아내(오른쪽)와 컴패션의 간호선교사 셸리 스완슨 씨와 함께 현지 한국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 d. 지금은 대학생이 된 컴패션의 전쟁고아를 만났습니다.

- 채은영(Che Un Yung) 씨는 내년 가을 미국과 캐나다 전역을 순회하는 투어 그룹과 동행할 예정입니다.

• 한센병 환자들의 미감염 자녀

아직 체력이 충분하다면, 저와 함께 한국의 가장 험난한 길을 따라서 한센병 환자들의 미감염 자녀들이 있는 컴패션 보육원으로 떠나봅시다. 여행에는 4시간이 소요됩니다. 휴게소도, 주유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에 출발해, 큰 강을 따라 여행을 시작합니다. 어느 지점에 이르면 우리는 그곳에서 잠시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누군가가 오늘 하루의 일을 위해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짧은 휴식 후 우리는 서둘러 길을 떠납니다.

도시와 시골을 지나 우리는 한국을 가로지르는 산맥에 도달합니다. 산길을 기어 올라가고 또 반대편으로 내려가며, 강을 한두 개 건넌 후 마침내 보육원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 어린이들은 모두 나와서 우리를 맞이하며 기쁨과 행복을 표현했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부모가 모두 살아있을 수 있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고아"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모는 한센병 환자입니다. 감염된 부모는 정부에 의해 한센병 환자 수용소로 옮겨지고, 그들의 자녀는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출생 후 곧바로 부모에게서 분리됩니다. 한센병은 유전되지 않으며, 이들의 자녀 역시 다른 어린이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입니다.

부모가 살아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어린이들은 부모와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고, 한센병 부모의 자녀라는 낙인 때문에 사회에서 자리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고아'로 간주됩니다. 한센병 환자의 미감염 자녀들은 서로 결혼한 다음 대개 대도시로 가서 사람들 속에 몸을 숨기고, 부모의 존재를 숨기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이들에게 상황은 매우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랑과 배려가 분명히 드러나는 보육원 같은 곳이 이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보육원의 원장님은 음악가입니다. 그는 보육원 재정을 돕기 위해 오르간을 제작하며, 그의 보육원에서 음악은 일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는 훌륭한 합창단을 이끌고 있으며, 이 합창단은 지방 도지사 앞에서 공연을 하고, 다른 많은 합창단과의 경쟁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보육원의 어린이들, 특히 남자 어린이들은 장인으로서 생계를 꾸려갈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능숙한 수습생으로서 대도시로 나가 목수나 목제 가구 제작자가 됩니다.

한센병 환자의 미감염 자녀들을 위한 보육원 중 한 곳의 부모 하나는 바로 옆집에 살면서 우리가 그들의 자녀들과 만나는 동안 울타리 너머로 아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들이 외국인인 자신들의 허락 없이 자기 자녀를 보러 오는 것을 싫어해 원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육원에서 차를 몰고 떠나자, 한센병 환자 부모들은 환호하고 손뼉을 치며, 우리가 와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준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서양인의 사고방식으로는 부모가 자녀와의 이별을 감수하며 자녀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기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는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이 미래에 가장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미국이나 서양 부모에게 입양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동안 세 곳의 보육원을 방문하는 일정을 마쳤습니다. 길고 험난한 도로를 달리



되는 과부들을 위한 집이 있습니다. 이 여성들의 남편은 사망했거나, 별거 중입니다. 어떤 남편들은 가족을 버렸습니다. 컴패션은 이 과부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제공하며, 그 자녀들은 부모가 없는 고아들처럼 가난하기 때문에 후원자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가나안 과부의 집(Canaan Widows' Home)은 여성들에게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곳에는 여성들이 옷을 만드는 봉제 공장이 있습니다. 스웨터를 짜는 뜨개질 부서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과부들은 그들의 자녀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가 보내는 후원금은 대부분 어린이들을 위한 음식을 제공하고, 교육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과부의 집은 꽤 성공적입니다. 이곳의 어린이들은 자라면서 자신을 돌보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을 누립니다.

- 컴패션의 프로그램에는 직업 훈련이 포함됩니다.

대구 시내의 다른 지역에는 소년들에게 목각 공예를 가르치는 보육원이 있습니다. 10살이나 11살이 된 소년들은 여가 시간, 즉 방과 후나 방학 기간에 조각 작업실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푼돈이지만 약간의 용돈을 벌 수 있고, 보육원 또한 미약하나마 부족한 수입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 보육원의 소년들은 높이가 2피트(약 61센티미터)인 것부터 2~3인치(약 5~8센티미터)에 불과한 작은 것까지 다양하고 사랑스러운 조각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조각품은 주한 미군 기지에서 쉽게 팔립니다. 대구 근처에는 꽤 큰 규모의 군부대가 있어서, 군인들이 조각품을 사서 집으로 가져가거나 선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여덟 명의 소년이 일하고 있는 목각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이 숫자는 다른 소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자리를 차지함에 따라 때때로 변합니다. 소년들과 원장님은 기초적인 대량 생산 라인을 만들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소년은 어느 작업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조각품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한 부분만 조각합니다.

목재는 2인치(약 5센티미터)에서 12인치(약 30센티미터)까지 크기가 다양한 정사각형 형태로 제공됩니다. 첫 번째 소년은 나무를 적당한 길이로 톱질합니다. 다음 소년은 깡이를 사용하여 모서리와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냅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양의 불필요한 나무를 효율적으로 잘라내며, 그 과정에서 다른 소년들의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다음 소년은 매우 무거운 정을 사용하여, 나무에서 더 많은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냅니다. 마지막으로 작업물은 실제로 거친 조각 작업을 하는 소년들에게 전달되고, 그다음에는 더 세밀한 조각이 이루어지며, 마침내 마지막 소년이 사포로 마무리합니다. 따라서 소년들은 하루에 수십 개의 큰 조각품부터 수백 개의 아주 작은 조각품까지 만들어 냅니다.

대부분의 컴패션 보육원은 컴패션 후원자가 제공하는 후원금 외에도 추가적인 수입원을 통해 여유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생활비가 상승하면서, 이 보육원들은 추가로 돈을 벌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 오는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 보육원, 특히 아주 남쪽 지역에서는 양고라 토끼를 대량으로 기릅니다. 어떤 보육원에서는 염소를 키우고, 어떤 곳은 돼지와 닭을 기릅니다. 어린이들이 먹고 남은 음식은 동물들에게 훌륭한 먹이가 됩니다. 닭고기는 한국에서 매우 고급 육류이며, 돼지고기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매우 독창적인 원장님 한 명은 물레방아를 만들어 수력 발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기 관계 펌프를 설치해 근처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이 작업으로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의 보육원에 있던 남자 어린이들은 뛰어난 전기 기술자가 되어, 자신들의 보육원에 전선을 연결했습니다.

몇몇 소녀들의 보육원에서는 고급 전통 예술 자수를 하거나 병풍을 만들어 추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병풍의 각 면을 만드는 데는 75~80시간이 걸리며, 보통 여러 면으로 구성됩니다. 병풍은 매우 아름답고, 한국에 주둔 중인 우리 군대에서 수요가 많습니다. 또한 동양 여행의 인상적인 기념품으로 관광객들에게 판매되기도 합니다. 컴패션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장려합니다.

127호 보육원은 우리 보육원 중 가장 좋은 곳 중 하나입니다. 이 보육원은 한국의 한 섬에 있습니다. 원장님이 보육원 근처에 정원 용지를 많이 갖고 있어 어린이들은 정원의 모든 일을 돌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채소를 직접 재배하고, 약간의 잉여분을 판매합니다. 이 보육원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한국 최고의 보육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진정 컴패션의 공로입니다.

(사진)

- 영진직업학교에서 여학생들이 타자를 배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 영진직업학교에서 여학생들이 바느질을 배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 샬리 스완슨(Sally Swanson) 씨가 컴패션 보육원을 대상으로 뛰어난 건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에드 김볼(Ed Kimba) 씨와 밥 모건(Bob Morgan) 씨와 함께 홀리 프루트 크리스천 보육원(Holy Fruit Christian Orphanage)을 방문했습니다.
- 컴패션 보육원 소년들의 조각 솜씨에 놀랐습니다.

서울은 한국의 수도로, 인구가 거의 400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입니다. 서울에는 큰 대학들이 있고,

최고의 일자리와 최고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컴패션은 서울에 유일한 여자직업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진직업학교의 원장인 이(Lee) 여사는 작지만 역동적인 여성으로, 매우 유능한 사람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한국군 장교였던 그녀는 만약 육군에 남아 있었다면 현재 대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최고 지휘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한국에서 유명한 야구 선수였지만,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모든 돈을 보육원에 투자했고,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의 도움으로 보육원을 여자직업학교로 바꾸었습니다.

학교 자수 작업실에서 소녀들은 병풍을 제작하기 위한 대형 패넬을 만듭니다. 각 패넬은 대개 한국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중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하나는 왕국의 왕자를 유혹하는 전통적인 농부 소녀를 다룬 이야기로, 12개의 패넬로 구성됩니다.

소녀들은 또한 바느질을 배웁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바비 인형의 한국 전통 의상을 만들어 이 나라로 보냅니다. 한때 컴패션은 후원자 선물용으로 수천 개를 구매해 후원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재봉실 옆에는 소녀들이 패턴을 자르고 재봉틀과 기타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 유용한 직업을 준비하는 드레스 제작실이 있습니다. 소녀들은 자신들의 옷을 만들고, 판매를 위해 드레스와 기타 의류를 제작합니다. 이 건물의 1층에는 주방과 식당 시설, 그리고 150명 이상의 여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약 4개의 대형 기숙사가 있습니다. 2층에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녀들은 미용 문화를 배우고 종종 도시의 유명한 미용실에서 일자리를 얻습니다.

- 방문을 마치며

제가 몇몇 보육원들만 소개했지만, 컴패션의 개별 보육원의 성과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보육원에서는 어린이들이 악기 연주하는 법을 배웁니다. 적어도 한 보육원에는 인쇄기가 있어, 소년들이 인쇄 기술을 배울 기회를 가집니다. 171개의 모든 보육원은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 보육원의 원장님들은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방식으로 보육원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어떤 어린이들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부 지역에는 비교적 큰 컴패션 보육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 보육원에는 몇 에이커에 이르는 과수원이 있으며, 소년과 소녀들은 나무에 농약을 뿌리고, 과일을 수확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많은 보육원이 논을 갖고 있어서 소년, 소녀들이 벼를 심고 추수기에 수확하는 일을 합니다. 일부 보육원에는 연료용이나 상업용 목재를 위한 산림이 있습니다. 해안가의 보육원들은 갯벌 농지를 개발했습니다. 많은 보육원에는 자체 과수원과 정원이 있고, 채소를 직접 재배합니다.

컴패션처럼 규모가 큰 조직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컴패션 보육원은 어디에 있던 최고의 시설을 자랑합니다. 집도 없이 떠돌이가 되었을 수 있는 수천 명의 소년, 소녀들의 삶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대해 컴패션 후원자들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으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컴패션이 제공하는 영적, 물질적 지원은 이 소중한 어린이들을 실질적이고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 남성과 여성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진)

- 어린이들이 후원자들에게 받은 놀이기구를 타고 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 영진직업학교의 한 강사가 한국 전통 미술 기법을 저에겐 설명해 주었습니다.
- 컴패션 보육원의 소녀들이 재봉과 같은 유용한 기술을 배우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 목포 보육원에서는 이 소녀와 같은 시각 장애인 소녀들이 아름다운 자수를 놓고 있습니다.
- 영진직업학교의 이 원장님이 소녀들이 완성한 병풍을 보여주었습니다.
- 우리의 십 대 자녀들이 서로의 머리를 손질해 주는 모습을 보는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 이 소중한 어린이와 같은 수천 명의 어린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컴패션의 사역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 컴패션 어린이 합창단 가을 투어 예정

**: 올가을, 한국 어린이들의 세 번째 연례 미국 및 캐나다 투어가 시작됩니다.**

9월 1일은 한국 컴패션 보육원 어린이들의 세 번째 연례 미국과 캐나다 투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번 팀은 한국에서 온 네 명의 어린이와 세 명의 성인 기독교 사역자 및 음악가들로 구성됩니다. 컴패션의 설립자인 고(故)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의 아내, 미리암 스완슨 여사가 팀을 이끌게 됩니다.

어린이들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 컴패션 사역의 진정한 의미를 더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노래를 부르고, 성경을 암송하며, 한국의 전통 민속 이야기를 무언극으로 공연하여 관객들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어린이들은 한국의 성인 기독교인들과 함께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중 두 명은 뛰어난 음악가들입니다. 한 명은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이며, 다른 한 명은 뛰어난 실력의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다. 이 팀은 감동적이고 도전적인 선교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미리암 스완슨 여사는 아마도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컴패션의 사역을 설명할 것입니다.

특별 모임은 캐나다에서 예정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몇몇 다른 장소에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의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컴패션>의 다음 호에서는 구체적인 일정과 날짜, 모임 장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개될 것입니다. 이는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번 호에 동봉된 특별 안내지는 투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이 투어 팀을 자신의 교회에 초대하고자 하는 후원자 그룹을 위한 안내서 역할도 합니다. 이 투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투어 일정: 원본 이미지 참조)

(사진)

- 이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은 노래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며, 수천 명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컴패션의 직원인 채(Che) 선생님이 어린이들과 동행할 예정입니다.
- 미리암 스완슨(Miriam Swanson) 여사가 투어 팀을 이끌 것입니다

### **에버렛 F. 스완슨 기념관 완공**

고(故)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은 컴패션을 탁월한 복음전도 선교단체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컴패션의 설립자로서, 그는 한 개의 작은 보육원에서 시작하여 한국 내 171개의 기독교 보육원 네트워크로 성장하는 사역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스완슨 목사님은 1965년 11월 15일, 51세의 이른 나이에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국,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선교사를 더 이상 이 땅에서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온전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많은 컴패션 친구들이 스완슨 목사님을 기리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기도와 신중한 고민 끝에 "에버렛 F. 스완슨 추모기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한국에 에버렛 F. 스완슨 기념관으로 알려질 새로운 본부 건물을 건축하고, 그 땅에서 컴패션의 방대한 사역을 위한 전초 기지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건축 계획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컴패션의 충실한 이사회 회원 중 한 명인 아서 크누센 (Arthur Knudsen) 이사는 일주일 동안 서울을 방문하여 건축 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을 할애했습

니다. 1966년 4월 2일, 스완슨 여사는 기공식을 위해 서울을 방문해 첫 삽을 들며 공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제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건물의 공식 봉헌식은 컴패션 비전트립 팀이 한국을 방문하는 5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사회는 한국에 대한 깊은 연민의 마음을 지닌 겸손한 사람, 에버렛 F. 스완슨 목사님을 기리기 위한 이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추모를 가능하게 해준 컴패션의 수많은 후원자와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진)

- 미리암 스완슨(Miriam Swanson) 여사가 기공식에서 연설하고 있습니다.
- 1966년 4월, 첫 삽을 떴습니다.
- 1966년 가을, 건축이 진행되었습니다.
- 1967년 5월, 새 건물을 봉헌했습니다.

### **알아 두면 좋을 공지 사항**

#### ➤ 두 번째 비전트립

두 번째 비전트립 팀이 5월 5일 일본, 한국 및 기타 동양 지역으로 출발했습니다. 관련 리포트가 이후 <컴패션> 매거진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 학생 지원

한국 사무소는 최근 중·고등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한 2,000명 이상의 남녀 학생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연간 수업료는 약 100달러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어린이가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면, 시카고 사무소에서 특별 통지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 ➤ 편지 및 소포 발송 지침

일부 후원자들께서 우편 발송 지침을 다시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모든 편지와 소포는 다음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번호 및 이름  
보육원 번호 및 이름  
컴패션  
I. P. O. Box 1670  
대한민국 서울

전도사나 학생을 위한 편지와 소포도 서울의 I. P. O. Box 1670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전도사 또는 학생의 번호와 이름을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이렇게 주소를 지정해 주시면 더 빠른 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sup>3</sup>앤 랜더스(Ann Landers)가 다시 컴패션을 홍보합니다.

지난 11월 30일, 전국적으로 유명한 칼럼니스트 앤 랜더스(Ann Landers)가 그녀의 칼럼에서 컴패션을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문의가 있었고, 새로운 후원자가 생겼습니다. 이후 3월 6일에는 다시 한번 칼럼의 대부분을 할애해 한국에서의 컴패션 사역을 다뤘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훌륭한 인물의 인정을 받게 되어 매우 감사드립니다.

### **보육원 성경 교사들에게 후원자가 급히 필요합니다.**

1년 전 컴패션은 각 보육원에 성경 교사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프로그램은 매우 유익한 것으로 입증되었으나, 여전히 훌륭한 교사들 중 다수에게는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성경 교사들의 업무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된 책임은 각 보육원에 체계적인 성경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그들은 어린이들이 개별적으로 겪는 문제들에 관해 상담하고, 고아 합창단을 조직하고 지도하며, 보육원의 건전한 영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실행합니다. 이는 어린이들에게 훌륭한 기독교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취해진 가장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이 유능하고 헌신적인 교사들은 컴패션 후원자들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보육원에서 성경 교사를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한 달에 20달러에 불과합니다.**

---

<sup>3</sup>앤 랜더스(Ann Landers): "Ask Ann Landers(앤 랜더스에게 물어보세요.)"는 시카고 선타임스(Chicago Sun-Times)에서 연재된 조연 칼럼의 제목이며, 앤 랜더스라는 이름은 실제 칼럼을 집필한 에스더 폴린 "에피" 레더러(Esther Pauline "Eppie" Lederer, 1918-2002년) 필명이었다. 이 칼럼은 1955년부터 49년 동안 이어진 전국적인 미디어 칼럼으로, 독자들로부터 폭넓은 사랑을 받았다([https://en.wikipedia.org/wiki/Eppie\\_Lederer](https://en.wikipedia.org/wiki/Eppie_Lederer)).

성경 교사 후원은 한국의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을 가진 단체나 개인에게 이상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 필요가 매우 큼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중한 기도와 고민 끝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171명의 성경 교사 중 단 47명 만이 후원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직 후원을 받지 못하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후원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오늘 아래 양식을 작성하신 후 반환하셔서* 이 새로운 프로그램의 첫 번째 후원자가 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풍성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경 교사 프로필)

**이상진(Lee Sang Jin)**

헌신적인 그리스도인 일꾼입니다. 19세에 구원받은 그는 이제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김영훈(Kim Young Hoon)**

그는 한국 전쟁의 참사에서 살아남았고, 이제는 어린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싶어 합니다.

**김정자(Kim Jung Ja)**

이 젊은 여성은 성경 교사로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평생을 바치고자 합니다.

**김영호(Kim Young Ho)**

이 훌륭한 남성은 사업적으로 좋은 지위에 있었으나, 성경 교사가 되기 위해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안미자(An Mi Ja)**

그녀는 보육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용주(Kim Yong Joo)**

그는 어린이들을 영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원근(Woo Won Kun)**

신학교를 졸업한 그는 컴패션 성경 교사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영희(Jung Young Hui)**

젊은 성경학교 졸업생인 그녀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용진(Yong Jin Lee)**

이 헌신적인 그리스도인 일꾼은 어린이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자 합니다.

**김경자(Kim Kyung Ja)**

그녀는 어린이들을 섬기는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스토리텔링에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희(Lee Jung Hee)**

피아니스트이자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그녀의 경험은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 좋은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동식(Lee Dong Sik)**

신학교를 졸업한 그는 어린이들에게 성경 암송과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자(Park Yung Ja)**

그녀는 어린이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불타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수명(Joo Soo Myung)**

그는 왼쪽 눈의 시력을 잃었지만, 가르치는 사역에 헌신하며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컴패션**

7774 West Irving Park Road  
Chicago, Illinois 60634

저는 한국의 성경 교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제 선택은 \_\_\_\_\_입니다. 만약 이 성경 교사가 이미 후원자에게 선택되었다면, 저는 비슷한 다른 성경 교사를 후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매월 20달러를 시카고 사무소로 송금하겠습니다. 동봉된 금액은 [ ] 첫 번째 달 후원금, [ ] 1년 치 후원금입니다. (편하신 대로, 다음 30일 이내에 후원금을 송금하셔도 됩니다.)

저는 다른 사람 또는 그룹과 함께 성경 교사를 월 10달러씩 공동 후원하겠습니다. 제 선택은 \_\_\_\_\_입니다. 하지만 요청이 도착할 때 이 교사가 이미 선택되었으면, 다른 교사를 선택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름: \_\_\_\_\_

주소: \_\_\_\_\_

도시: \_\_\_\_\_ 주: \_\_\_\_\_ 우편 번호: \_\_\_\_\_

**컴패션 우체통**

**은혜의 나눔**

- 글: 오나 브루턴(Ona Bruorton)

"저에게 후원자님이 생겼다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다니, 이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 날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저는 작은 토끼처럼 폴짝폴짝 뛰었어요. 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후원자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후원자님을 어떻게 부르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요. 저는 후원자님을 '부모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제가 후원하는 마칭 크리스천 보육원 (Marching Christian Orphanage)의 소년이 쓴 편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동철(Dong Chul)의 부모가 되어 기쁩니다. 우리의 기쁨을 더해 준 것은, 또 다른 편지에서 발췌한 다음 내용입니다. "며칠 전에 받은 잠옷에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이전에 잠옷을 가져 본 적이 없어요. 잠옷을 입고는 정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많이 컸어요."

하지만 우리는 두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선(Yung Sun)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일원이 되었고, 그녀가 최근 4,000명의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학업 성적 1등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부모로서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긍휼함으로 이 어린이들을 바라보셨고, 다가가셨습니다. 이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가족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헨리 하비 컴패션 회장의 비서로서 제가 받은 축복입니다. 수천 명의 컴패션 어린이들의 필요에 대한 그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그의 헌신과 신실함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것은 매우 특별한 특권입니다. 이 모든 축복에 대해 가장 감사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사진)

- 동철(Dong Chul)
- 영선(Yung Sun)